

## 사진치료에 참여한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백 지 연

유 현 실<sup>†</sup>

단국대학교

본 연구는 중년여성가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변화해가는 과정 자체를 세밀하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년여성가장들이 삶의 역할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과 여성성과 모성이 정체성으로 조합되어져가는 주관적이고 세밀한 경험의 세계를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방법론을 통해 탐구하였다. 또한 정체성 탐구의 유용한 도구인 사진치료를 통해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의 탐구 공간인 3차원적 공간 내에서의 참여자들의 공통경험은 첫째, 상황의 차원에서는 '돌봄의 부재', '통제의 재현', '단절과 고립', '양육 책임'이었고, 둘째, 시간성의 차원에서는 '도피', '침체', '모성회귀', '성숙'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상호작용의 차원에서는 '순응', '거부', '주도', '상호의존'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력한 딸', '착한 아내', '독한 엄마', '가족의 구심점'으로 이어지는 역할상의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진치료의 경험은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과정에서 미해결과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확인하며, 자기수용을 촉진하여 결국 관점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 또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년여성가장, 정체성, 변화, 사진치료, 내러티브 탐구

\* 본 논문은 백지연(2015)의 박사학위논문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사진작업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를 일부 발췌 및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유현실,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E-mail: hsyoo@dankook.ac.kr

생애주기 중에서 중년을 경험하는 여성은 결혼 이후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가지게 되었던 모성역할을 거의 완수함으로써 역할상실과 함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Levinson (1996)에 의하면 중년기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재평가하기도 하고,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죽음을 느끼게 되어 시간전망이 달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여성은 공교롭게도 갱년기의 신체적 변화 또한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증후와 유사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은 청소년과는 달리 가족 및 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 등과 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애순, 1993; 김춘경, 2010; 변외진, 2007; 이경혜, 1997; 이경혜, 김언주, 2001, 이복희, 2008;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이옥희, 이지연, 2012). 여성에게 중년이란 가정과 일과 관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기존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을 찾고 확립해야 하는데서 다가오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중년의 신체적 쇠퇴를 맞이하는 많은 이들은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나의 인생은 이것으로 좋은가?', '나는 정말 무엇인가?'하는 진지한 문제에 접하게 된다. 이 진지한 삶의 방향의 모색, 이는 곧 자아정체감의 탐색이다(박아청, 1994). 이처럼, 생애 발달과정에서 중년여성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년이후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장이 된 여성들은 경제적 책임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 건강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역할을 상

실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 또한 경험(김영희, 한경혜, 1996)하게 되므로, 보다 복합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통계청(2006)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독신생활자의 증가, 이혼이나 별거, 높아진 초혼연령,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장기복역, 행방불명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여성가장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정 & 정은미, 2008). 홀로 되어 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할 책임을 지게 된 여성가장들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학습해 나간다(김숙남 외, 2002). 특히,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가장이 된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양육 스트레스, 건강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계와 기존의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대인 관계가 축소되거나 상실되는 데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한경혜, 1996). 즉 이들은 중년의 발달적 변화와 맞물린 기존 역할상의 급격한 변화 및 다중적 역할 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성의 해체와 확장, 다중적 정체성 등의 정체성 관련 연구 측면에서 중년여성 가장이라는 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가장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여성들의 스트레스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대상으로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김오남, 2004; 송다영, & 김유나, 2008; 이재림, & 옥선화, 2001; 이소영 & 옥선화, 2002; 진미정 & 김은정, 2005). 또한,

여성가장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 주로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Bursik, 1986),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Bursik, 1986; Cheryl, 1982) 및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상태(Duffy, 1995; Scott, 1991) 같은 개념을 적응으로 보고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숙남 외 2002).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여성가장의 정체성 관련 연구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 관련 양적 연구가 있었다(성정현, 1998; 김숙남 외 2002).

더욱이, 국내에서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Dignan(1965)의 척도<sup>1)</sup>를 주로 사용하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여타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양적인 연구를 다수 행해왔다(변외진, 김준경, 2007; 송순민, 2001; 이복희 외, 2010; 이경희, 2005; 최원희, 2006 등). Marcia의 자아정체감 지위론 등은 기본적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형성되었고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남성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여성 특유의 자아정체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박아청(2001)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성이나 모성이 연마되어 자아정체감으로 조합되어 가는 방식은 극히 중요한 과제이며, 이 문제가

말로 현대여성의 자아정체감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중추적인 문제의 하나(박아청, 2001)이나, 이러한 측면이 현재 활용되는 자아정체감 척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도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정체성 자체를 탐구하기보다는 우울, 모성, 사별경험 등(김춘경, 2010; 노영주, 한경혜, 2000 등)의 특정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질적 분석하거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메체치료의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연경, 2004; 조규영, 박성옥, 정광조, 2013 ; 김경선, 성승연, 2012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중년여성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척도를 통한 양적 측정이나 특정경험의 분석을 통해서 중년 여성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측정도구 상의 문제나 특정 경험에 국한한 분석 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탐구 방법으로서 초상사진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체성이란 바로 자신에 대한 탐구이기에, 탐구에 앞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선경, 2006). 우리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으므로, 주로 거울이나 타인의 시선에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다. 자기인식이론(self-awareness theory; Duval & Wicklund, 1972)에서는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의 치유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을 자기-직면의 접근으로 활용한 많은 연구들은, 만약 개인이 자신을 볼 때, 타인이 자신을 보듯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이론을 적용시켜왔다. 현실검증력이 탁월한 사진은, “내담자 자신에 의해 선택된 내, 외적

1)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기감각, 독 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 등 7개 하위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봉연(1975)이 ‘자기주장’이라는 하위영역을 새로 설정하여 총 8개 하위영역, 64문항으로 체계화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관련 검사로는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박아청, 1996)가 있으며 기존의 자아정체감검사들의 다차원적 영역을 포괄하여 주체성/자기수용성/미래확신성/목표지향성/주도성/친밀성/정체감유예/정체감혼미 등 총 8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를 판단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수단(Zakem, 1977)이 되기 때문이다. 심리적 투영으로서의 사진을 매체로 하는 사진치료의 강력한 사례는 결국 자기 직면을 제공하도록 사진을 활용하는 데에 있다(Fryrear & Krauss, 1983). 초상사진은 지표(index)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하여 준다. Roland Barthes(1980)는 그의 저서, 『카메라 루시다』에서 “나는 포즈를 취하는 동안 내 자신을 구성하고, 순식간에 다른 육체로 만들고, 미리 앞질러 스스로를 이미지로 변형시켜버린다.”고 언급하였다. 즉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순간 인간주체가 이미지로 표상된다는 것이다. Barthes가 언급했듯이 초상사진은 자기를 이미지 속 타자로서 객관화시켜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체로서 정체성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개물인 동시에 경험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선경, 2006).

그러한 측면에서 사진은 정체성 탐구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모든 사진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화상 사진으로 이해될 수 있다(Weiser, 2005). 사진치료에서 투사적 기법을 활용한 시초로 여겨지는 Alfred Stieglitz는 모든 사진은 ‘자신의 심리적 투영’이라는 의미에서 사진의 은유적 상징성을 제기하며, 사진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사진치료에 고유한 특성의 시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홍미선, 2011). 특히, 초상 사진은 더욱 직접적인 정체성 탐구의 매개일 수 있는데, Cornelson과 Arsenian(1960)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상 사진의 자기직면 경험의 결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 개념, 혹은 적어도 제한된 자기 인정(appreciation)의

확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사진을 상담에 적용할 때는 자신을 직면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을 탐색, 수용, 이해하고 표현하는 안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화 외, 2013).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상으로는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자서전적 접근 및 정체성 탐구에 적합하며(Freeman, 2001), 특히 삶을 이야기하기에 익숙한 중년 여성의 정체성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Polkinghorne(1988)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방식은 인간을 하나의 전개되고 발전되는 이야기의 표현으로 이해하며,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아정체성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를 오가는 일종의 역사적 통일체이다. 또한 MacIntyre(1985)는 모든 인간이 삶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이며, 인간은 이야기를 통하여 자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박민정, 2006).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질적 연구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내러티브 방법론은, 이처럼 정체성을 ‘자아’, ‘자기개념’ 등의 고정된 개념이 아닌 이야기 및 현재진행형으로서 이해하므로(Polkinghorne, 1988),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를 구체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고 여겨진다. 또한 시각적 내러티브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어(Bach, 2001), 사진치료 작업을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사진은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서 일종의 기억 상자(memory box)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Clandinin과 Connelly(2006)에 의하면 기억 상자란, 중요했던 시점, 사람,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항목들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진은 삶에서 우리 시대의 특정 기억, 즉 우리가 구성하는 이야기와 관

련된 기억이 선명해지도록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진치료의 경험이나 효과보다는 중년여성가장의 삶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변화 자체를 사진을 통해 개방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사진치료의 특성 상 정체성 변화에 촉진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사진치료를 통해 정체성 변화를 유도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여성가장들이 삶의 역할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과 여성성과 모성이 발휘되는 주관적이고 세밀한 경험의 세계를 사진치료 작업을 활용한 내러티브 방법론을 통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자의 선 이해

연구자<sup>2)</sup>는 아동기 시절 기존에 살던 지역과 매우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사 및 전학 경험 이후 정체성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상담심리사로서의 전문적인 성장과 병행하여 결혼과 양육 등으로 인한 역할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위기와 변화의 계기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자신에게 묻

2) 내러티브 탐구는 흔히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자 자신의 내러티브를 쓰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는데 이는 내러티브 탐구의 중심이 되며 앞으로 진행될 자료수집 및 해석뿐만 아니라 연구문제를 심도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여기서는 형식상 간략히 주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과 가정을 서술하는 것으로만 대신하였다.

곤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이 극적으로 바뀔 때마다 이는 곧 생활상의 변화와 확장으로도 이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자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의문은 자연스럽게 내담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는가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내담자가 스스로를 좁은 관점으로 규정 지을수록 그 심리적 고통은 컸고, 보다 넓은 관점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같은 상황과 위기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넘겨가는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을 상담자로서 지켜보면서 보다 일반적인 개인들은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 변화를 겪어내어 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여성으로서 수동적 삶을 살다가 중년기를 거치면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 여성가장의 극적인 전환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중년여성가장은 정체성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 싶다는, 본 연구의 주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 연구진행 절차

Maxwell(2009)은 질적 방법-질적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관계, 참여자선택, 자료수집, 자료분석의 네 가지의 주된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설계하고 Connelly 와 Clandinin(2000)이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방법 절차를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은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단계들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과정과 과정 사이가 겹치기도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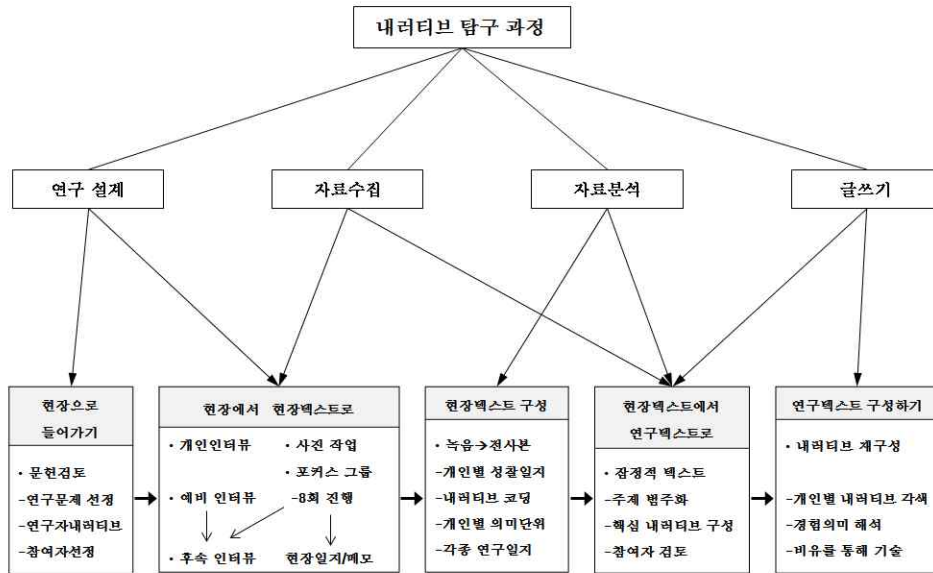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 진행절차

되기도 한다(염지숙, 2003).

####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적절성’과 ‘충분함’이라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purposeful selection) 하는 전략을 취한다(Maxwell, 2009).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Maxwell, 2009). 또한 질적 연구가 갖는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력은 연구 참여자의 수가 얼마나 많으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Patton,

1990, 2005).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강조되는 탐구방법이 내러티브탐구이다. 즉, 일종의 대화(dialogue)로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따라서, 연구의 편의상 이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지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할 수도 있다(홍영숙, 2009, 2014).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5세~55세로 범위를 한정하였고(Cavanaugh, 2012), 모성과 여성성(박아청, 2001)을 포함한 중년여성의 정체성 탐구에 적합하도록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제안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제시한 참여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와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어 내러티브 탐구 특유의 협동이 가능한 자
- 2) 자신의 정체성 탐구에 관심이 많고 본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연 령	직 업	가족 사항	학 력
강서현(가명)	52	사업가	이혼, 2남 1녀	대학원 졸
권선우(가명)	45	약사	기혼, 1남 1녀	대학원 졸
나연희(가명)	47	예술 관련직	재혼, 2남	대학 졸
민태주(가명)	49	교육 관련직	기혼, 2남	대학원 재

연구 참여에 동기가 높은 자

3)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년기에 정체성 혼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자

4) 여성가장 역할과 관련하여 직업, 결혼 및 이별, 출산 및 양육의 경험이 있는 자

이러한 준거기반 선발(criterion-based selection) 절차를 통해 연구모임에 자원의사를 밝히고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와 관련된 단체나 주변인들에게, 연구자의 연구의도 및 계획에 대해 미리 알리고,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본래 전업주부 및 독신여성을 포함한 총 여섯 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예비모임을 통해 연구 참여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부담감 및 거리상의 문제로 두 명이 포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네 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 일종의 예비연구로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년

여성 6명의 사진치료 경험에 대한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해 질적 연구자로서의 수행 및 본 연구로서의 이행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개별적 인터뷰 및 예비모임을 가졌다.

참여자 확정 후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친 사진치료 작업모임 및 집단 포커스 그룹<sup>3)</sup>을 진행하였고, 모임을 모두 마친 후에는 다시 1~2차례에 걸친 개인 심층인터뷰를 각 회기 당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사진 치료는 정체성 변화라는 연구주제에 맞게 정체성 관련 이야기를 촉진할 수 있는 과정들로 연구자가 계획 및 진행하였고, 매 회기 사진치료 작업 작업이 끝나고 분위기 전환을 한 후 미리 준비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 및 진행 대본을 가지고 사회자 겸 보조리더가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이 끝난 이후 실시된 개인 인터뷰의 경우 별도로 질문지를 준비하지 않고 자유롭게 면담하되, Seidman(2006)의 권고에 따라 참여자의 생애사, 참여자의 신념을 만들어내는 경험의 세부내용,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반성하는데 초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3) 질적 연구의 한 유형인 '집단토의연구(focus group)'는 분석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소집단에 두고 집단의 역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조용환, 2002).

그 외에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의 이행과정에서 잠정적 텍스트를 확인하는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모임 및 개인별로 수차례의 이메일 서신 교환 등이 있었다. 또한 연구시작 후 종결 시까지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를 통한 전 참여자와의 상시 교류가 있었는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받거나 일상적인 소통 및 관찰이 가능하였다. 이렇듯, 공식적 면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만남에서의 일상적 대화나 우연한 행동관찰 또한 자료수집에 모두 포함시켰는데, Maxwell(2009)에 의하면 이러한 자료 수집 방식들은 특히 중요하다. 중요한 맥락적 정보와 다른 견해를 제공하고 면담 자료를 재조사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사전 개인 면담 및 예비모임
- 2) 매 회기 1시간 30분~2시간, 총 8회기에 걸친 사진치료 작업에서의 현장관찰 및 기록
- 3) 매 회기 1시간 정도의 포커스 그룹 담화
- 4) 참여자 각각에 대한 1시간 30분~2시간, 1~2 차례의 개별 인터뷰
- 5) 참여자의 모임후기 및 성찰일지, 연구자의 현장노트 및 연구메모
- 6) 참여자가 찍거나 수집한 사진
- 7) 전화통화, 이-메일 서신교환, 상시적 메신저 교류

Patton(1990, 2005)은 질적 연구에 있어서 개인면담을 통해서만 자료 수집을 하기보다는 개인면담과 포커스 그룹 등을 동시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연구자 또한 사전에 시행된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의 심층적

정보는 수집할 수 있었으나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관찰 및 수집 가능한 자료 또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모임과 개별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모임과 모임 사이에는 의도적으로 2-3주 정도의 공백 기간을 두었는데, 이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모임의 녹취자료에 대한 전사본작성 및 그에 따른 다음 모임의 포커스 그룹 질문을 도출해내기 위함이었고, 참여자 입장에서는 모임에서의 경험을 성찰하고 모임후기를 작성하며 생활에서의 변화로 전이시키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sup>4)</sup> 모임 및 면담 중에는 표정을 포함한 행동 관찰 및 특이사항도 모두 기록하였다.

모임과 포커스 그룹을 마친 이후에는 연구 참여자 별로 필요에 따라 1~2회 이상의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약 1시간 30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임의 전 과정과 개별면담은 모두 녹음 후 전사하였으며, 개별 면담 및 모임에서 각 참여자의 발언내용을 개인별로 별도 편집한 전사본 자료는 A4용지로, 각 개인별 평균 80~100여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다. 8회에 걸친 사진치료 작업 및 포커스 그룹의 종합적인 자료는 350페이지 정도이고, 기타 성찰일지 및 현장메모, 연구일지, 메일로 보내준 일기나 파일 등까지 모두 합산한 총 자료는 약 680페이지 분량이다.

자료 수집에서 반드시 염두에 둘 점은 수집되는 자료들 간에 괄호 치기가 이뤄져야 한다

4) Georgia 대학의 Merriam교수 지도로 질적 연구 박사학위를 마친 김영석 교수는 내러티브 연구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진행을 권유한 바 있다(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워크숍 자료집, 2014 참조).



는 점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 참여자로부터 나온 자료와 문헌고찰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성찰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였다.

#### 자료 분석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연구의 기본 틀로 삼차원의 탐구 공간(three dimensional narration inquiry space)을 제안하였다. 삼차원의 공간은 장소(상황), 시간성(연속성), 상호작용을 각 축으로 하여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공간이다. 이 삼차원의 공간 안에서 참여자 및 연구자의 경험을 위치시키고, 시간적, 내부적, 외부적 차원의 방향에서 연구한다. 즉, 연속성(continuity)면에서 앞으로, 뒤로(forward, backward)의 방향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며 상호성(interaction)면에서 내부지향과 외부지향(inward, outward)의 방향을 나타낸다. 내부지향은 감정, 희망, 심미적 반응, 도덕성과 같은 내부적 조건을 의미하며, 외부지향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환경의 외부적 조건을 의미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인 삼차원 탐구 공간 내에 참여자와 연구자의 경험을 위치시키는 한편,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네 가지 방향의 논의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잠정적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동안 참여자에게 일어난 현재의 사건 뿐 아니라 과거, 미래의 경험의 연속성 또한 성찰하려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William Labov가 제안한 방법을 참고하였는데, 그의 절차는

우선 내러티브적 설명을 담고 있는 인터뷰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응답자의 전체적 반응으로부터 플롯(스토리의 주제나 핵심)을 추출한다(Labov, 1982). Labov(1982)가 의미하는 내러티브적 설명이란 '사건들이 실제 세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시간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험의 개괄'이며 그는 스토리의 특정한 내용을 일반적 구조로 축약함으로써 플롯을 도출해낸다. 내러티브의 구성은 '존재(being)'에 대한 단순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능성(becoming)'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박민정, 2006). Polkinghorne(1988)에 따르면,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analysis of narratives)과 '내러티브의 분석'(narrative analysis)이다.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은 내러티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논리적 서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자 자신이 지닌 패러다임에 따라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내러티브의 구조와 단위에 집중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내러티브의 분석'은 연구자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이들을 하나의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의 핵심 내러티브를 시간, 공간, 상호작용의 삼차원으로 분석해내되, 신현정(2008, 2009)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먼저 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우선 분석한 후 연구자와 참여자의 교차적 틀에 입각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 결 과

### 삼차원 공간분석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내러티브의 삼차원 탐구 공간에 위치시키고 분석하되, 여기서는 내러티브 탐구의 네 가지 방향 중 안으로의 방향, 즉 개인 내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삼차원적 탐구공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각 차원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차원 각각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각 차원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소(상황), 시간성(계속성), 상호작용의 각 차원에서의 참여자들의 경험내용의 변화 및 정체성 변화구조, 사진치료 작업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2에 표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차원별로 그 경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세 개의 차원마다 각각, 주로 네 개의 경험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4 단계에

걸친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 과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황

여기서는 삼차원적 탐구 공간 중에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처했던 실존적인 상황을 위주로 분석, 기술하되 뒤에서(과거) 앞으로(현재, 미래)의 방향으로 기술하였다.

### 돌봄의 부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유린, 차별, 통제, 방치 등 그 각각의 형태는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실은 충분한 돌봄 대신 통제, 방치 혹은 휘둘리는 돌봄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돕거나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해야 했던 경우들이 많았다. 즉, 참여자들은 충분히 자신의 의존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하며 성장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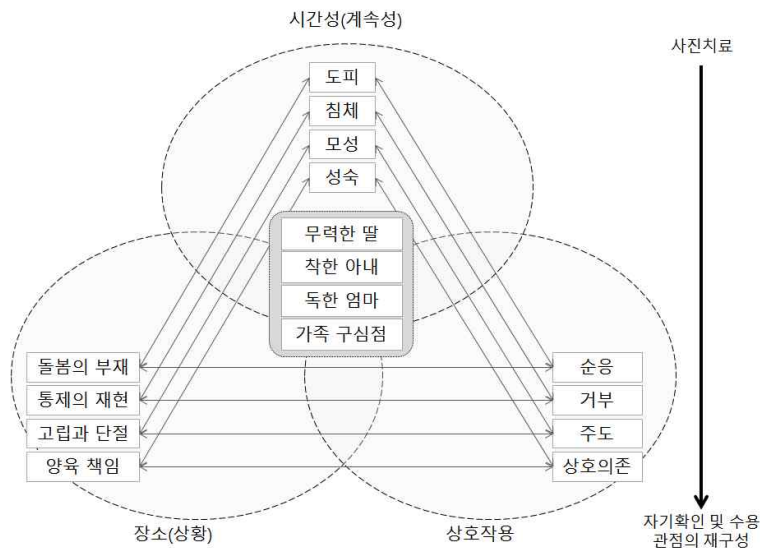


그림 2. 3차원적 공간분석과 정체성 변화의 전체 구조

하였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러한 욕구의 결핍이 이어지게 되었다. Minuchin(1974)은 자아와 자율성 발달과 최적의 적응능력 발달 그리고 심리적 성숙은 부모와의 따뜻한 애정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독립성의 발달에 의해 촉진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심리적 독립과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력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니 오빠들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됐다는 거...한참 돌아서면 배고프고 설거지 마치면 배고픈 그 순간에도 나는..그니깐 맘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눈치 보여서. 조카들을 업어서 키워야 됐었고 (음)학교 끝나면 내 삶이 아니라 언니가 원하는 가사 일을 도와야 됐었고. 심지어는 조카 젓 뭘 때 그 업고 보체는 애를 내가 밤에 업고 달래고...

- 강서현, 2014. 7.15 개인면담자료

공부와 집안일을 강요당했다. 초등 고학년부터 우리 가족의 집안 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가게의 종업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도와야했다. 엄마는 늘 집안일 외에도 아버지 심부름이라든가 바깥일이 많았고..원래 엄마는 외향적이고 리더형이어서 동네 아줌마들 또는 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 어느 모임에서도 리더였다. 학교 다녀오면 집에 안 계신 경우가 많았다.

- 권선우, 2014. 9. 이 메일 서신

### 통제의 재현

Barber 와 Harmon(2002)에 의하면 심리적 통

제란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고 독립심이나 자율성의 표현을 차단하는 행동을 통해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에 돌봄의 부재 대신 통제나 방치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결혼을 통해 막연히 현실의 도피를 추구하게 되는데, 막상 당연한 결혼생활의 현실은 성장기의 심리적 통제가 남편이나 시부모를 통해 오히려 좀 더 증폭되어 재현된 것이었다. 부부관계의 건강지표인 자율성과 독립성은 원가족의 경험에서 형성된 자기분화와 관련이 있는데 (권선림 외, 2012), 건강한 원가족에서 성공적인 자기분화를 해내지 못한 참여자들은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강서현은 거처가 안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추행에 시달리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믿고 결혼을 서둘렀다. 그러나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고, 임신 중에도 계속된 폭력과 의도 속에서 무수한 갈등을 겪어내어야만 했다. 나연희는 자신이 아닌 부모의 의지로 선을 보고 결혼했으나 곧바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로서 감히 대들지 못했으며 무조건 참고 살라는 친정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권선우의 경우 자신에게 이상을 보여주었던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방치와 통제로부터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결혼 후에 곧바로 남편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권위자로서 통제하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태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타인에 대한 통제를 행하는 다소 독특한 경우로서 타 참여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나타나는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부모로부터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던 이들의 의존욕구는 결혼 이후 또다시 좌절된다는 점에

서는 공통적이었다.

근데, 음...제가 결혼하자마자 큰 애가 생겼는데요. 하여튼, 임신 6개월인 나에게 출산을 한 손위시누의 산후 간호를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어려운 시누이의 미역국을 끓이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그거 꼭 해야 되냐,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그랬더니 (남편이) 산책하다가 확 빠져가지고 먼저 집에 갔는데. 쓰레기 버린 쓰레기장을 보니까 기타가 뽕개져 있고, 명패도 깨져 있고... 그때부터 수도 없이 가정폭력이 심했죠.

- 강서현 2014. 7.15 개인면담자료

어디 갔다 오다가 신랑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걸레를 집어 던졌어요. 빨리 애 가질 생각해야지. 그 약 시간 안 맞겠다고. 항상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화장실 휴지통도 뒤지는 거야. 오늘 부부 관계 했냐 안했냐...

- 나연희 2014. 7. 개인면담 자료

### 단절과 고립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던 결혼이 또 다른 통제로 이어졌을 때, 참여자들은 더 이상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강서현은 자식과 헤어진 후 가족과 단절, 고립된 기간이 5년이나 지속되었고, 나연희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 아들 둘을 두고 가출한 이후 1년여 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권선우는

도피로서 선택한 결혼이 또 다른 통제로 이어지자 그 때는 막다른 벽에 부딪힌 듯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민태주는 아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결혼 전에는 내가 좀 힘들고 괴로워도 해매면서 지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게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니까..또 남편하고 결혼 초에는 진짜 많이 싸웠던 거 같아요. 한 10년까지는 피 튀기게 싸웠던 거 같아요. 그 미국에서 경찰이 우리 집에 오고 난리를 치고.. 웃음. 신고해서...

- 권선우, 2014. 4.22 집단 인터뷰 자료

내가 전화했더니 애들 혼란스럽다고 전화하지 말라고..그리고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을 한 5년 못 봤는데...그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피워서 내 생명이 줄어들어서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한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 강서현. 2014. 5.27 집단 인터뷰 자료

### 양육책임

참여자들의 삶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양육상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상황이었다. 비록 자신의 의존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양육을 할 만한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이미 단절과 고립의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한 뒤였으므로,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모성역할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했으므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를 병행하면서

또한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가사일과 육아 또한 담당해야 하는 치열한 삶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의 초기 중년 무렵이었고, 이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좀 더 강한 엄마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자기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생각은 없고 자기가 안 되겠으니깐 1년 만 맡아 달라고 하고선 그 이후에 양육비도 없고.

- 나연희, 2014. 5.27 집단면담

그 때 퇴근이 별로 늦지 않고 6시니까 직장 바로 앞에 집 얻고, 80만 원 정도 벌어서 모자가정 지정받고...그렇게 애들 길렀고, 00회사에서 직원 구하길래, 그 때 직원으로 지원했다가 뽑혔어요. 면접 볼 때부터 가장 신뢰로운 직원으로 뽑혔을 거예요.

- 강서현, 2014. 개인면담

나연희의 경우에 자식과 이별하였던 기간이 고통스러웠지만, 자식과 함께 살게 된 이후에는 신용불량자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구하러 다니거나 자격증 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권선우의 경우에도, 남편이 가출했던 2년의 기간 동안 자녀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율성과 독립성을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참여자들은 이렇듯 각고의 노력으로 양육 상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보다 강한 엄마로 거듭나게 되었다.

## 시간성

여기서는 3차원적 공간 중에서 참여자들의 공통경험을 시간성 차원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시간성은 경험의 연속성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한 개인의 경험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차원에서 연결하는 일종의 방향성이나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인생방향은 공통적으로 당면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타인이나 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외부지향과 외부나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차원을 찾는 내부 지향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환의 가운데에는 더 이상은 선택지가 없는 '바닥체험(nadir experience)'이 있었으며 방향전환의 계기로 작용한 것은 바로 '모성'으로의 회귀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성의 발현은 생활상의 책임으로 다져지면서 이후 참여자들의 심리적 성숙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도피, 침체, 모성회귀, 성숙으로 이어지는 참여자들의 시간성을 크게 현실도피와 모성회귀의 두 가지 방향성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현실도피: 외부지향

그래서 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게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걱정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마지막에 마지막 걱정기도 날에 그 사람이 차 한 잔 하자고 그렇게 됐는데. 나는 그거를 응답으로 착각을 한 거죠...제가 빨리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니깐 그러면서 서둘러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 강서현, 2014.7.15. 개인면담 자료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 굉장히 집을 벗어나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컸거든요. 근데 유학도...그랬던 거 같아요. 결혼도 약간 탈출 비슷하게... 굉장히 잘 알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내가 가진 여건과 생활을 탈피하기 위한 도구로. 유학생활동도 그 비슷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 권선우, 2014, 10. 이 메일 서신 자료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현실로부터의 탈출, 도피,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지향하던 참여자들은 첫 번째 도피인 결혼이 파국에 이르러 두 번째 도피로서 단절을 선택한 이후에는 자녀와의 생이별 등으로 인한 바다체험(nadir experience)을 하게 되고, 이러한 침체 속에서 내면으로의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부나 타인을 통해서 충족하려던 욕구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보인다.

#### 모성회귀: 내면지향

참여자들은 타인을 통해 의존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던 끈질긴 지향을 일부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권선우의 경우에 첫 자녀가 남편과 마찬가지로 잘 소통이 되지 않자, 본격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아탐구를 시작하여 수년간을 지속하였다. 민태주 또한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앞에서 절망하다가 마음공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마음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분야의 대학원을 진학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기존의 삶의 방식과 관점으로 부터의 변형을 이끌어낸 커다란 계기와 동력은 모성이었으며,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한 각자의 직접적인 방법은 자아성찰을 동반한 수행이나 공부, 예술창작 등이었다.

내가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뭘 탐구하고 성취하고 이런 게 초점이었는데...내가 가족한테 봉사하고 이려고 죽을란다. 이게 이번 삶의 모토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구요.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약간 그런 게 나한테 또 전환점이라면 전환점인 거 같아요.

-권선우, 2014. 8. 22 전화 인터뷰

예전엔 남들의 눈...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적어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평가가 두려웠다고 하면 지금은 평가는 평가고, 남들은 남이고..나는 그럴 수 있다. 남들의 평가가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거...

-강서현, 2014. 7. 15 개인면담 자료

제가..주변과 편해진다는 게 나이 들면서 여유가 생긴 거 같아요. 항상 24시간이 바쁘데도 중년이 되면서 내 마음이 준비해 온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 예전에 사람들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제가 원래 추구했던 바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태주, 2014. 5. 27 면담자료

강서현의 경우 자신의 내면적 힘을 확인한 후에는, 능력을 발휘하여 운영하였지만 내내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웠던 사업체를 청산하고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본인은 지방으로 홀로 내려가는 결단을 하였다. 향후에는 조용히 살면서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글이나 강연으로 나누는 삶을 지향한다. 나연희의 경우에는 사진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확인하고 참여자들로부터 격려를 받은 후에는 스스로 눈치 보면서 억눌려 온 지난 삶을 돌아보는 한편, 자신의 유능함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감히’ 남편을 쫓아내는 생활상의 변화를 보였고, 그 후에는 오히려 의지할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남편을 보듬어 주었다. 권선우는 자신이 오랜 시간 부모와 남편에게 ‘빠쳐’ 있었기에 가족들에게 소통을 게을리 했던 점을 발견하고, 오히려 아이처럼 친구처럼 가족 속에서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게 된 변화가 있었다. 또한 오랜 시간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자아 탐구에만 몰입하던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녀와 남편, 그리고 친정 가족을 살뜰히 챙기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태주는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완고한 할아버지의 모습과 타인에 대한 못마땅함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기존의 여성상과 달리 독불장군처럼 강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타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동료나 가족과의 소통에 보다 가치를 두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교육 사업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변화는 모성으로 자녀를 돌보는 양육 상의 책

임을 다하며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는 자원을 찾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돌봄의 차원에서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상호작용

여기서는 삼차원적 공간 중에서 상호작용 차원을 위주로 참여자들의 공통경험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상호작용 또한 안으로(inward), 밖으로(outward)의 두 가지 방향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보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안으로의 방향을 위주로 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상호작용은 크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으로부터 독립으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순서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순응, 거부, 주도, 상호의존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독립은 후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Blos, 1967). 개인은 부모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심리적 독립 및 분리 개별화를 이룸으로써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고, 비로소 성인기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이주연, 하상희, 2012).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년기가 되면서부터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리적 독립을 성취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자 중 한 명인 민태주의 경우에는 타 참여자들과 다소 달리, 거부와 주도성을 먼저 경험한 후 순응과 상호의존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인다.

#### 순응

참여자들은 아동기부터 결혼 기간, 즉 중년기 이전까지는 권력을 지닌 타인과의 관계에

서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는 개입이나 통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순응하는 수동적인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태주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언니가 집에 없을 때면 (형부가) 나를 만지는 거죠. 그거 싫다 하지마라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그거에 대한 표현이 그냥 못 만지게 이불로 내 몸을 푹푹 싸는.. 뭐 형태로 표현을 했죠.

- 강서현, 2014.7.15. 개인 면담자료

찍 소리도 못하구요. 밥을 먹는데. 살다 보니까 안경 낀 일이 있잖아요, 침침하니까. 시어머님이 안경 낀 거 보고 나보고 병신이라고. 밥을 먹는데. 병신같이 안경을 끼고 자기를 속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푹푹 떨어지는데 그 밥을 고개 숙이고 다 먹었어요. 제가 배운 교육으로는 그 어떤 소리를 해도 어른이 하시는 소리는 들어야 하잖아요.

- 나연희, 2014.7.15. 개인면담 자료

### 거부

참여자들이 순응적인 상호작용의 태도를 버리고 거부를 시작한 것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폐해졌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즉 심리적인 막다른 절벽에서야 비로소 거부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면 평생 이 쳇바퀴를 벗어날 길이 없어서, 아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이제 마지막 보따리를 단단히 싸죠. 난 정말 이 남자 아닌 거 같은데 이

혼해도 되냐 이랬는데 언니들은 끝까지 반대하면서 참고 살아라 이랬었는데, 결국은 내가 가족들과 상의안하고 이혼이라는 사고를 친 거죠. 내가 그래서 몇 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안하고 인연을 끊은 적 있어요.

- 강서현, 2014. 7. 15 개인면담 자료

저는 (이혼) 하고 싶다고. 더 이상... 자식이 눈에 안 밝히냐고 해서.. 그전에는 자식이 밝혔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미칠 것 같으니까 자식조차도 눈에 안 밝힌다고..내가 일단 살아야지.. 했더니 '그럼 그래라' 이러셨어요. 저희 아버지 엄마도. 제가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 나연희, 2014.7.15. 개인면담 자료

남존여비 사상에 길들여진 할아버지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막내딸 민태주는 타 참여자들과 달리 처음부터 여성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보다는 주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상호작용하였으나 당시의 여성들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 점과 맞물려 또래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부재와 갈등을 겪어야했다. 따라서 민태주의 전환점이 된 것은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데서 온 좌절이었고, 그 좌절과 무기력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상호작용상의 흐름을 보다 순응적으로, 보다 소통하려는 태도로 변화해가기 시작했다. 즉 민태주의 경우 타 참여자들과는 다른 순서와 흐름을 보이는 상호작용 패턴을 보인다.

부드럽게 뭔가 유연성 있게 대처 못하고 두루두루..섞이고 이런 게 내가 그걸 참원하는 태도 안 되고. 섞이고 이런 게...현



대 사람들이 말하는 길로는 사회성 부족이  
에요. 사회성이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런 생각이 들어요...

- 민태주, 2014. 6. 10 집단면담 자료

**주도**

참여자들은 순응-거부의 시간을 거쳐 마침  
내 관계에서 주도하는, 상호작용 상의 반전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은 기존의  
순응적 태도와, 그에 따라 감내했어야만 했던  
여타 불이익들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서현은 신앙과 명상을 통해 넓어진 관점  
으로 직장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모  
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키우며 경제적 능력을  
확보한다. 더 이상은 누군가에 의해 휘둘리는  
희생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성  
취된 능력 속에서 삶을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연희 또한 자신을 돌보지 못  
하고 생계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생활력을 얻었다. 또  
한 재혼은 하였으나 여전히 아들들에 대한 양  
육의 책임은 나연희가 지고 있다. 권선우의  
경우 남편이 가출한 2년 동안 처음으로 경제  
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서 스스로 독립성과 자  
율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민태주의  
경우에도 갑작스런 남편의 명예퇴직 후에 능  
력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 되었  
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은, 이전  
까지의 삶에서의 시련과 그로 인한 단절, 단  
련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심리적 독  
립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분화된 개인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의지  
하는 개인적 역동이라고 할 수 있다(Hoffman  
& Weiss, 1987). 그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독립

을 성취한 참여자들이 오히려 모든 면에서 능  
력을 좀 더 발휘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데 분명하게 기억나는 거는요. 남편  
가출 시기에 제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구축  
한 건 확실해요.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많  
이 매어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  
았거든요.

- 권선우, 2014. 8. 8 전화 인터뷰

이혼이...정말 원래의 가족이랑 포지션이  
달라지는. '나도 내 삶을 혼자 결정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포지션이 달라지는. 그  
때부터 중요한 결정을 물어보긴 하지만,  
과감한 결정도 내가 내리는..그랬던 거 같  
아요.

- 강서현, 2014.6.10. 집단 면담 자료

내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 뭔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뭔가 내가 하는 것과. 내가 똑  
같은 걸 하는데, 누군가가 먼저 해버리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게 어릴 때도 그랬  
는데 여기서 드러난 거죠. 서로 다 독립적  
으로 살아요. 연락 없으면 별일 없는 거겠  
거니. 동생으로서 귀여움도 받는 것도 있  
었겠지만 항상 그걸 즐기기보다 독립적으  
로 살고 싶어했던 거 같고.

- 민태주, 2014. 4.22 집단면담 자료

**상호의존**

참여자들은 순응에서 거부로, 다시 거부에서  
주도적인 상호작용으로의 변화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그간의 상호작용방식을 통합하여  
보다 성숙한 상호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러나 중년기 이후 상호의존으로의 변화는 네 명의 참여자 중 다른 방향으로의 흐름을 보였던 민태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겠다 싶으니까 차라리 편해지더라구요. 웃음..어차피 내가 질 짐은 다 지고 살아왔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내가 생활력을 갖고 애들이 클 때까지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제...제 역할인 거 같아요. (남편한테)기대지 말고...

- 나연희, 2014. 6. 10 집단 면담자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사는 게 익숙한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뭔가 모를 믿음.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생각 하니까 제가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 민태주, 2014. 5. 27 집단면담 자료

결국은 가족들이 힘들었던 그런 모든 삶들이. 어찌면 정말 언니 오빠들이 괜찮았으면 난 여전히 의존적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서운함이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를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있어요.

- 강서현, 2014.6.10. 집단 면담자료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존욕구로부터 비롯된 순응적 상호작용의 태도로부터 벗어나 가장으로서 주도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가장으로서의 삶이 어느 정

도 안정된 이후에 오히려 상호의존적인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민태주의 경우에는 타인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다른 방식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녀는 순응에서 출발해서 거부를 거쳐 주도성을 획득하는 타 참여자의 흐름과 달리, 먼저 거부하고 먼저 주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였으나, 그 방향이 성숙의 방향인 것은 타 참여자와 공통적이다.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큰 흐름으로 보자면 결국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한 심리적 의존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체성 변화구조

삼차원적 탐구 공간에 위치한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정체성 변화과정은 주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에 따른 정체성 변화로 도출되었다.

#### 무력한 딸

참여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로서의 정체성은 가족관계 속에서 주로 무력한 딸로 인식되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가족 내에서 대체로 결정권이나 선택권이 없고, 부모나 형제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들이다.

아버지가 대학 안 보내준다고 할 때 그래도 밀고 나갔으면 대학교를 보내줬을 텐데...제가 대학을 갈 때는 시집가려고 대학을 간 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간 건데 부모님은 결혼시키는 데 올인이 되어있는 거야.. -중략- 선을 보고 결혼하기 까지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좀 집착증이 있는 것 같아서 싫다고 그랬어요.-중략- 양가 어른들이 있는데 니네가

함부로 하느냐, 집에서 난리가 나고 울고 불고 하고, 그런 것 없다고 무마시키고 집 안 어른들이 다시 해서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 나연희, 2014. 7.15 개인면담 자료

나연희뿐만 아니라 타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선택권이 없고, 부모나 형제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에 있어서는 유사한 역동을 보여준다. 권선우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많은 형제 중의 막내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즉 막내이면서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권력 상 최하단에 위치하므로 감히 타 가족구성원에게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도 부모에게 맡기는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인다.

### 착한 아내

참여자들이 부모에게 무기력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결혼 후 배우자나 시부모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착하고 인내하는 아내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모습이면에는 부모나 형제의 ‘참고 살라’는 조언이 계속해서 주입되고 내사되는 측면 또한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석사 마치고 무슨 00위원회 이런 데를 들어갔는데 바람이 난 거 같아요. 자기는 이만큼 높아졌고, 나는 별 볼일 없고. 자기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그럴 때마다 살기 싫어서 보따리를 싸고, 언니 있는 지방에 내려가면... 언니도 사고방식이, 니가 참고 살아라 이거고

- 강서현, 2014. 7. 15 개인면담 자료

제가 엄마를 원망하는 게 뭐냐 하면..여자가 시집가면 병어리 3년, 장님 3년 뭐 이렇게 3년을 살아야지 그랬어요. 사실 한 2년 살고 나서 아니다 싶었거든요. (결혼생활을) 관두려고 했는데. 내가 평생에 흠집이 될 거를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 나연희, 2014. 7. 15 개인면담 자료

### 독한 엄마

이렇게 무기력하고 착한 딸에서 아내로 이어지던 참여자들의 정체성은 자녀 앞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여성으로서는 약하지만 어머니로서는 강해지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으로서,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 강해져야한다는 자기 인식 상의 변화를 보인다. 강서현의 경우에도, 이별하였던 자녀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체를 키우는 능력을 보이게 되고, 나연희 또한 이혼 후 아들 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생활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권선우의 경우에 남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남편이 가출한 2년 동안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엄마로서 강해졌다. 또한 민태주의 경우에도 남편의 조기퇴직 후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치열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못 살 것 같으면 같이 죽어야 되고. 봐두고 죽으면 안 되고. 누군가의 짐이 되는 건 싫으니까. 살 거면 눈을 떴으면 일해야 되는구나. 뭐든지 찾아야 되는구나.

- 나연희, 2014. 9. 30 추가 인터뷰 자료)



사진 1. 나연희의 “뒷모습”

### 가족의 구심점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의 최종적인 형태는 ‘가족의 구심점’으로서의 자기인식이었다. 만 이로서 동생들에게만은 권력을 행사했던 권선우를 제외하고, 가족권력의 주변부에 있던 이들은 여러 가지 치열한 노력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가족의 구심점이 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 이면에는 인정에 대한 욕구와 보상심리도

5) 사진치료 모임 중에서 각자의 앞모습, 뒷모습, 얼굴을 찍은 후에 빔 프로젝터 화면으로 함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그간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중년여성가장으로서의 고달픔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사진이므로 나연희의 허락을 얻어 게재하였다.

있겠으나, 한 집안의 가장 무력한 구성원으로 부터 가족의 구심점으로 정체성이 변화, 확장 되어가는 과정을 보이며 그러한 자신에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권선우의 경우에는 가족서열 상 부모에 의해서는 통제당하면서도, 동생들에게는 권력을 행사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오랜 수치심에서 벗어나 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서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서로 소통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원하고 선호했던 거 같아요. 그게 점점 되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엄마로서, 딸이로서, 언니로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구요.

- 권선우, 2014. 6. 10 집단 면담 자료

그거는 부단한 싸움..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상대와의 싸움도 있고..노력 없이 고통 없이 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아내로서의 내 자리도 싸워야 이루어지는 거고, 삶의 주인으로서의 내 자리도 고통이 없이는 결코 이 자리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이 고통을 나의 의식의 확장이나 내 삶의 주인 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의미를 잘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 같아요.

- 강서현, 2014. 7. 15 개인면담 자료

내가 생활력을 갖고 애들이 클 때까지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제...제 역할인 거 같아요. 기대지 말고....제가 서서히 구

심점이 되고, 부모님의 구심점이 되고.

- 나연희, 2014. 7. 15 개인면담자료

지금까지 기술한 삼차원적 탐구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의 공통적 경험과 그에 따른 정체성 변화의 구조는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서로 복잡한 역동 속에 얽혀 있다. 즉 참여자들의 상황은 시간성으로 이어지며, 시간성은 다시 안으로, 밖으로의 상호작용과 연관된다. 또한 삼차원적 공간 속에서 참여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는 가족의 주변부로부터 가족의 구심점으로 이동해 가는 역할 상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치료 작업의 의미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진치료 작업을 통해서 정체성의 변화 자체를 경험하였다기보다는 그간 자신이 변해온 과정이나 미해결과제를 오히려 확인하였다는 점을 보고하였는데, 그러한 발견이나 자기 확인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실행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흔히 사진치료에서는 상징과 투사의 기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투사적 기법은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일컫는다(Weiser, 1999). 그러나 Weiser(1999)에 따르면 사진자극에 대한 투사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일정한 해석 매뉴얼은 없다. 해석은 그 정확도 여부보다는 그 경험의 내용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참여자의 사진 하나하나를 해석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전반적인 사진치료 작업의 경험 내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 정리하였다.

#### 미해결과제의 발견

미해결과제란 아직 완결되지 않은 혹은 해소되지 않은 욕구(게슈탈트)를 말하는데,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here and now)'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Perls는 주장하였다(Simkin & Yontef, 1979). 즉, 그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사를 파헤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저절로 미해결과제가 해소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자들도 미해결과제의 발견 자체가 미해결과제의 해소로 이어지는 측면을 보고하였다.

(가족과)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웃음) 그런데 여전히 사진을 보면서는, 그 때 이렇게 어린 나를 두고서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감정이 올라온 거죠.

- 강서현, 2014. 6. 10 집단면담 자료

근데 그걸 저는 명확히 구분을 못하겠는데... 셀프 카메라 찍고 그런 날 (감정이) 일어났고, 사진을 본 날 못마땅함이 일어났고. 그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못 느끼고 잤을 거 아니에요. 건드려지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다 있다가 탁 건드려진 거니까.

- 민태주, 2014. 7. 15 개인면담 자료

#### 변화의 확인

Ryan박사는 자각의 도구로서의 사진의 활용을 강조하면서 카메라라는 도구의 활용은 표면적인 형상 이면을 보는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개인의 세상과 깊게 접촉하는 개인의 능력에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하였다(Ryan &

Molesey, 2012). 참여자들은 미해결과제의 발견 뿐만 아니라 사진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 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 변화 자체를 확인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즉, 참여자의 각각의 삶에서의 흐름에 따른 정체성 변화과정을 사진치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자기 발견과 자기이해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사진을 보는 거였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거를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어. 뭐 어디 특별한 것보다 연대기로 나누고 사진을 하다 보면 나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구나. 내가 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못나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꾸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 나도 좋았던 때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잘 살아 온 거구나...(웃음)

- 나연희, 2014. 6. 10 집단면담 자료

가족사진을 챙기면서도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사진을 통한 주제 속에서도 가족 속에서의 나의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런 거... 내가 어떤 장면을 선택하면서도 내 무의식을 보게 되는 거고, 내 사진을 통해서도 내 얼굴을 보며 내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매체가 주는 효과가 꽤 컸던 거 같아요.

- 강서현, 2014. 6. 10 집단면담 자료

어제 친정 다녀왔는데요. 옛날 사진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걸 다시 볼 때 솔직히 20대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해매고 놀기만 했는데 목적의식도 없고 그랬는데. 그 때 나름대로 좋았겠구나 싶어서 소중한 느낌 받았어요.

- 권선우, 2014. 4. 22. 집단면담 자료

### 자기 수용

Hayes(2004)에 의하면, '수용(acceptance)이란 사적인 사건, 자기, 역사 등의 주요 영역에서 직접적인 변화의제를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을 가리키며, 생각과 감정이 말하는 대리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도록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해결과제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그간 살아온 이야기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사진치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러한 발견과 확인은 자신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을 수용하고 나서는 비로소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새로운 실행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사진치료 작업을 통해 자신의 미처 몰랐던 측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면서 새로운 실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자리로 내려온 느낌? 계속 받아들이기를 하면서 비로소 내 얼굴이 좀 편해지는 거? 그리고 나 이쁜 줄 알았는데 별 거 없네? 뭐야? 허무함? 되게 허무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결론은 그냥 받아들이자. 특별함을 규정하고 특별하게



사진 2. 권선우 작, “아이가 되어”

살려고 하지 말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 강서현. 2014. 6. 10 집단면담 자료

똑같이 관점이 다 다르고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는 것도...그리고 생각보다는 내 자신이 별로 싫지 않다는 거...(웃음) 제가 사진을 안 찍은... 찍기 싫어한지가 결혼하면서부터인데, 아... 내가 사진 찍어도 괜찮다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렇구나, 그냥 내가 특별히 문제라기보다..

- 권선우, 2014. 6. 10 집단면담 자료<sup>6)</sup>

이와 같이 아동기의 순응적 태도와 그에 따른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주도성을 보이며 강한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했던 참여자들은, 사진치료를 통해서 주로 그러한

6) 권선우는 사진 콜라주 작업을 통해서 자신 안의 아이와 같은 측면을 수용하는 동시에 가족의 중심점으로서의 자신 또한 수용하는 경험을 표현하였다.

변화를 발견하고 변화한 자신을 수용하여 현재에 통합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결국 자신과 삶에 대한 관점의 재구성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네 명의 참여자를 통해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정체성의 정의인 ‘살아내는 이야기(Stories to Live By, SLB)’으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 내 참여자들의 상황과 시간성, 상호작용이 맞물리는 자리에서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확인하였다. 중년여성가장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는 상황차원에서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여성이 의존욕구를 해소하지 못하여 결혼 후에도 갈등을 겪다가, 모성을 통해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심리적 의존에서 심리적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크게 형상화할 수 있었다. 또한 살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가족관계상의 역할 상 가족권력의 최 하단에서 가족의 중심점으로 그 정체성이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참여자들이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과정에서 순응적이고 무력한 딸과 아내로부터 강한 엄마와 가족의 중심점으로 정체성이 변화해가는 삶의 과정 자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목한 부분은 정체성의 고정, 해체, 확장, 다중성 등에 따른 삶의 변화이며 정체성의 자기규정에 따른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따라서, 아동기에 공통적으로 돌봄보다는 방치를, 자율보다는 통제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뒤늦게 양육책

임을 다하기 위해 심리적 의존에서 심리적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그에 맞물린 정체성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은 부모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심리적 독립 및 분리 개별화를 이룸으로써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고, 비로소 성인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이주연, 하상희, 2012)는 측면에서 볼 때,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년기로 진입한 이후에 오히려 심리적 독립을 성취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중년기의 심리적 독립 이후에 참여자들의 능력이 보다 능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독립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분화된 개인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개인적 역동이라고 한 Hoffman(1984)의 주장을 상기시키게 된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넘어서고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양육역할과 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양육 역할이라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들(김경신, 김정란, 2001; 최원희, 2006 등)과 일치하며 Erikson이 주장한 중년기의 발달과제로서의 생성감이 자녀양육을 통해 상당부분 형성된다는 것을 연구한 Peterson 및 Duncan(2007; 이복희 외, 2010에서 재인용)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강서현이 자녀들과의 이별기간에서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나, 자녀들과 재결합을 한 후에는 생활력이나 삶의 적극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처럼 타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체성 변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모성적인 계기를 통해 촉발된 명상, 신학, 대학원 공부 등을 통한 일정기간의 자아 성찰의 경험

이었다. 각자의 방법으로 행해진 이러한 성찰의 시간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 내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정체성의 변화를 확인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며, 확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에서 주목할 사항은 '정체성 변화'를 탐구함에 있어 참여자들이 일반적인 중년기의 과도기적 변화를 겪는 대상이 아니고 여성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특수성에 있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모성 및 양육 상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중년기에 이르러 가장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삶에 있어서의 주도권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과정은 "여성가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적응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고 한 김숙남 등(2002)의 연구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장의 적응이란 이전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변화된 경제적 수준에 적응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새롭게 형성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 성정현(1998)의 연구와도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박아청(2001)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평가되는 도시중산층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인 주부역할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체감은 다분히 맹목적이고, 극히 제한된 영역에 한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록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가장의 역할일지라도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을 벗어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생성감의 충족과 자아정체감의 향상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취업을 한 중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복희 등(2010)의 연구에서 직업, 배우자, 양육의 세 가지 역할 중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직업 역할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직업 역할에 대한 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존중감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가정의 역할 자체가 아니라,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관점이 가장 역할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연희와 같은 참여자의 경우, 가장이 된 자신을 부정적 관점으로 보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다가 모임 과정에서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에서 유능감을 확인하였던 것이 연구 참여에서의 가장 큰 수확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여성가장들을 보는 사회적 편견일 수 있다. 여성가장들은 적응을 위해 자신의 주체적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아지지만,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신감의 결여 등으로 정체성이 혼란되고 삶의 상실감과 허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김숙남 외, 2002).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정체성의 변화 및 확장 과정에서 주로 주변인이나 가족의 관여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접하고 내면의 심리적인 갈등과 투쟁을 벌여야했다. 즉,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를 고찰할 때는 개인의 정체성에 반영된 사회적 맥락 또한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년여성가장의 심리적 함의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중년여성가장이 다양한 이유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그 또한 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적응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주로 한정되어 있다(김오남, 2004; 송다영, 김유나, 2008; 이재림 & 옥선화, 2001; 이소영, 옥선화, 2002; 진미정 & 김은정, 2005).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한정되지 않으면서도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된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가장의 살아가는 이야기로서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심리적인 역동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인 중년여성가장과 관련된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적 편견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실직 등의 여타 이유로 여성이 가장이 될 때 “여자가 팔자가 세다”, “박복하다”, 심지어는 “남편 기를 누른다” 등의 암묵적인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PPK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에 의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며 배우자 혹은 시부모 등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발휘할 때 가장으로서 역할을 통해 심리적 독립 및 가족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여성가장을 보는 관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년여성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관한 개방적이고 세밀한 분석 내용은 향후 중년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국내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바탕이 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Clandinin과 Connelly (2000)가 일종의 '기억상자(memory box)'라고 지칭한 사진을 통해 '시각적 내러티브 탐구' 중에서도 사진을 활용한 내러티브의 방법론을 시도하였다. 사진을 연구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찍히고 싶고 찍고 싶어하는 이미지에 대한 단서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할 때 사진은 시각적 문장이 되며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찍은 사진은 나중에 여러 단서 사이의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한다(Clandinin, 2006).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직접 찍거나 수집하거나 재구성한 사진들을 통해 참여자의 정체성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하였고, 사진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론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내러티브(이야기)와 사진치료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관점을 재구성하고 다시 살게 되는 내러티브 탐구의 순환과정은 치유의 과정과 유사하며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진치료의 경험을 분리하기 보다는 내러티브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삶의 흐름에 의한 것인지, 사진치료로 인한 것인지, 집단에서의 이야기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사진치료나 내러티브, 각각의 영향력을 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나, 이에 따른 모호한 경계는

본 연구의 필연적인 한계점일 수 있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 특유의 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 네 명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하긴 하였으나 그들의 이야기를 중년여성가장이라는 범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예술기반 내러티브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그 심미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Barone과 Eisner (1997, 2011)에 따르면, 예술기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1) 가상현실의 창조 (2) 애매모호함의 존재 (3) 심미적, 은유적 표현의 사용 (4) 일반 대중들이 흔히 사용하는 맥락화되고 세속적인 언어의 사용 (5) 공감의 증진 (6) 연구자/저자의 흔적 (7) 미적 형식의 존재 등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형식에 있어 가상현실의 창조나 맥락화되고 세속적인 언어의 사용 등 위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르는 데 있어 형식상의 제약점들이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임상적용 및 연구 방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년여성가장의 상담 개입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요소에도 주목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발견에 의하면 중년여성가장은 중년 이후 가장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긴 하였으나 가족 내에서 가장 무력한 구성원으로부터 가족의 구심점으로 정체성이 변화,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변화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경험들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요인에 강조점을 둘 때에는, 중년여성가장들의 표면

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이면의 숨겨진 무의식적 욕구나 가족 내 심리적 역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낸 중년여성가장의 심리적 갈등과 투쟁, 성숙 과정에서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이혼 혹은 상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에 처한 중년여성 내담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전략으로서 내담자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framing) 전략, 내담자의 자립과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을 방해하는 자동화된 부정적 사고의 교정 전략, 내담자의 자원을 발견하고 지지해주는 ‘힘 북돋기(empowerment)’ 전략, 내담자가 직업적 유능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커리어 코칭 등이 유효한 상담 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사진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론이 별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물론 명확한 정의와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사진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참여자와 연구자를 위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실재를 연결(Bach, 2001)시키며,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기록하며 드러나게 하는 사진의 측면은 질적 연구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진이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단순한 ‘기억상자’의 기능을 넘어서, ‘살아내는 이야기’로서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가시화하고, 내러티브 탐구에서 강조하는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실험적인 시도와 한계를 넘어서서 예술기반 내러티브 탐구의 특화된 한 방법으로서 향후 사진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기정,정은미 (2008). 여성가장의 부모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연구*, 5(1), 117-133
- 고선경 (2006). 사진매체의 특성을 통한 다중적 자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논문*.
- 권선림 외(2012). 부부의 심리적 독립, 자기분화,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5(1), 27-42.
- 김경선, 성승연 (2012). 독서치료를 경험한 중년 여성의 삶의 인식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75-516.
- 김경신, 김정란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4), 105-120.
- 김민화, 김준형 (2013). 사진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의의식과 삶의 목적수준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0(3), 39-55.
-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지 (2002).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생의 의미수준. *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190-200.
- 김영석 (2014). 내러티브 탐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질적 연구방법론 워크숍 자료집*.

- 김영희, 한경혜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263-276.
- 김오남 (2004).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단일호), 85-118.
- 김애순, 윤진 (1993). SESSION 6: 중년기의 위기: 중년기 위기감: 그 시기확인 및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 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993(단일호), 247-260.
- 김춘경 (2010). 중년기 우울 여성의 우울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1(4), 1783-1806.
- 노영주, 한경혜 (2000). 50대 중년여성의 모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pp. 1-22.
- 박민정 (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4), pp. 27-47.
- 박아청 (1994). Marcia 의 아이덴티티 지위면접을 활용한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67-185.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40-162.
- 박아청 (2000). 성인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고찰. *사회과학논叢*, 19(2), 47-61.
- 박아청 (2001).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대한 Erikson이론의 재검토. *인간발달연구*, 8(2), 49-64.
- 변외진, 김춘경 (200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55-276.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慶北大學校 大學院.
- 성정현 (1998). 성역할 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다영, 김유나 (2008).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 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한국가족복지학*, 22(단일호), 131-159.
- 송순민 (2001).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대상관계의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 신현정 (2009). 아동상담자의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41-53.
- \_\_\_\_\_. (2008). 아동상담에서 아동의 변화과정과 변화요인: 치료놀이 (Theraplay) 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4(3), 323-347.
- 염지숙 (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 이경희 (2005).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와 자아정체성과의 발달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 (199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일고찰. *아동교육*, 6(2), 143-153.
- 이경혜, 김언주 (2001). 중년여성의 역할적응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학회지*, 15(2), 157-176.
- 이복희 (2008). 취업 및 미취업 중년기 기혼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03-120.
- 이옥희, 이지연 (2012). 중년기 생성감 (Generativity)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2), 665-688.
- 이소영, 옥선화 (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7), 53-68.
- 이재림,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5), 49-63.
- 이주연, 하상희 (2012) 부모 애착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태도의 매개 경로 분석. *상담학연구* 13(6), 2821-2837.
- 이연경 (2004). 유방절제술을 받은 중년여성의 미술치료 경험.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영, 박성옥, 정광조 (2013). 중년여성의 한국화 미술치료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9(3), 205-234.
- 조용환 (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 학사.
- 진미정, 김은정 (2005).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단일호), 163-188.
- 최원희 (2006).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41-150.
- 한경혜, 노영주 (2000). 50 대 중년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22.
- 홍미선 (2011). 투사적 기법을 중심으로 한 사진치료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문화기획 석사논문.
- 홍영숙 (2014). 내러티브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제. *송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미출간 워크숍 자료집*.
- Bach, Hedy (2001). *The Place of the Photograph in Visual Narrative Research*. *Afterimage*. Vol. 29 Issue 3.
- Barber ,Harmon (2002). In Search of the Source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4), 539 - 559
- Barone, T., & Eisner, E. W. (Eds.). (1997, 2011). *Arts based research*. Sage.
- Barthes ,Roland (1980). *Camera Lucida*.; 조광희&한정식 역(1998). 카메라 루시다. 열화당.
- Barthes, R., & Howard, R. (2010). *Camera luci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New York: Hill and Wang.
- Blos, Peter.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
- Cavanaugh, J. C., 김수정, 심응철, 송길연, 이지연, 양돈규, . . . 이효영 (2012). *성인발달과 노화*. 서울: 시그마 프레스.
- Clandinin & Connelly (2000). *Narrative Inquiry*.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 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2006).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Ed.). (2006).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Sage Publications.
- Cornelison, F. S., and Arsenian, J. (1980). A study

- of the response of psychotic patients to photographic self-image experience. *Psychiatric Quarterly*, 34(1), 1-8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
- Duval, S., & Wicklund, R. A.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eman, M., & Brockmeier, J. (2001). Narrative integrity: Autobiographical identity and the meaning of the "good life.". *Narrative and identity: Studies in autobiography, self and culture*, 75-99.
- Fryrear, J.L & Krauss, D.A (1983), *Photography in mental Health*(135-150), Springfield, IL:Charles C.Thomas.
- Hayes, Steven C.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relational frame theory, and the third wav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2004). *Behavior therapy* 35(4), 639-665.
- Hong, Y. S. (2009). *A Narrative Inquiry Into Three Korean Teachers' Experiences of Teaching Returnee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 Labov, W. (1982). Speech actions and reactions in personal narrative.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219-247.
- Levinson, Daniel J. (1996). 김애순 역 (2004). *The Seasons of Woman's Life*.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axwell, Joseph A. (2009). 이명선, 김춘미, 고문희 공역. 질적 연구설계: 상호 작용적 접근. 서울 군자출판사
- Patton, M. Q. (1990, 2005). *Qualitative research*. John Wiley & Sons, Ltd.
- Polkinghorne Donal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강현석,이영효, 최인자, 김소희, 홍은숙, 강웅경 역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 Ryan, J., & Molesey, E. (2012). Photography as a Tool of Awarenes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44(1), 92.
- Simkin, James S., and Gary M. Yontef. (1984) "Gestalt therapy." *Current psychotherapies*. 279-319.
- Seidman, Irving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3rd), 박혜준.이승연 윤킴 (2009).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Weiser, J. (1999). *PhotoTherapy Techniques*. 심영섭, 김준형, 이명신 공역 (2012). 사진치료기법. 학지사
- Weiser, J. (2005). *Photography as nonverbal Communication in Cross Cultural Psychology*, Cross Cultural Perspective in Nonverbal Communication
- Zakem, B. (1977). Photographs help patients focus on their problems. *Psychology Today*, 11(4), 22.
- 1차원고접수 : 2016. 00. 00.  
심사통과접수 : 2016. 00. 00.  
최종원고접수 : 2016. 00. 00.

## A Narrative Inquiry on the Identity Change of Household-heading Middle-aged Women in Photo Therapy

Ji-Yeon Baek

Hyun-Sil Yoo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make a detailed inquiry into the process itself in which middle-aged female heads of families realized their own identities and they changed. Hence, through the narrative methodology of Clandinin and Connelly(2000), this study made an inquiry into the method of defining themselves within the relationship and within the role in the life of middle-aged female heads of families and the subjective and detailed realm of experience where femininity and motherhood were mixed into identity. Besides, through photo therapy, useful tool of identity inquiry, an inquiry was intended to be made an inquiry into the process identity change of middle-aged heads of families through visual image.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3-dimensional space, narrative inquiry space, the participants' common experiences wer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in the situation(place) dimension, they were 'absence of care', 'reappearance of control', 'severance and isolation', and 'responsibility for rearing'. Second, in continuity(temporality) dimension, it was shown that they were 'escape', 'depression', 'maternal regression', and 'maturity'. Third, in the interaction dimension, it was deduced that they were 'adaptation', 'refusal', 'leading' and 'interdependence.' It was shown that these analysis results were in gear with the process of change in participants' identities from the viewpoint of role connected to 'helpless daughter', 'good-natured wife', 'tough mother', and 'centrality of family.' Besides, it was shown that photo therapy experience resulted in reframing the viewpoint by finding unfinished problem, checking a change, and accelerating self-acceptance in the process of change in participants' identiti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se study results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Household-heading middle-aged women, identity, change, photo therapy, narrative inquiry